

活氣되 찾은 病든 韓牛牧場

技術指導 4개월만에 完治돼

飼育頭수도 늘고 體重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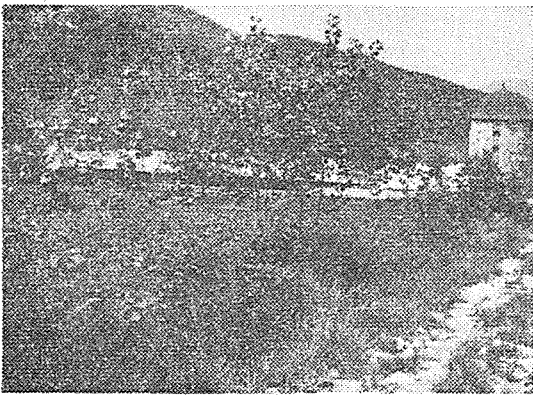
— 금곡목장 지도경위와 成果 —

금곡목장(목장장 이철상)은 경북금릉군 농소면 노곡동산 언덕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아담한 목장.

韓牛 66頭를 사육하는 목장이지만 이철상목장장은 이 사업에 온정력을 쏟으면서 韓牛牧場으로서 새로운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정성을 드린 보람도없이 지난 4월들어 서부터 소들이 生氣를 잃고 원인불명의 심한 삭수를 이끄는가 하면 폐사하는 경우까지 있어 심한 충격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당황하기만 했다. 더욱이 이목장장은 과거 축산영농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데다가 牧場을 인수한지 한달밖에 되지않아 과학적인 치료방법이나 응급처치등 아무런 준비와 자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病에 시달리고 있는 소에 대한 걱정은 더하기만했다.

李목장장은 며칠간을 궁리끝에 급기야 경북새



노곡동산 언덕에 자리잡은 아담한 금곡목장 전경
마을기술봉사단에 심한 식수및 폐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對策을 요청, 기술지도를 의뢰해 왔다.

李목장장의 시급하고도 간곡한 기술지도 요청을 받은 경북 도새마을기술봉사단(단장 洪鍾旭)

은 즉시 團員인 이현범(경대), 최원필(경대), 손재영(영대), 서영석(영대)씨를 파견해 먼밀한 답사를 시작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韓牛의 질병은 예상했던 것보다 심했다.

韓牛 66頭의 거의가 심한 영양장애와 삭수에 빠져 폐사직전에 놓여있었다.

또 대부분의 韓牛가 심한 피부병과 구루병 또는 골면증에 걸려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같은 질병의 만연은 오래지않아 사육소전부를 폐사시킬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봉사단은 우선 이같은 원인이 기생충병및 비합리적인 사육관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벌였다.

1次의 (75.4.6)으로 전체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혈액및 대변검사를 위한 검체물을 채취하고 牛群의 50%이상이나 감염되고 있었던 피부전염병 백선증의 치료방법을 지도했다.

특히 사육한우의 상당수가 구루병에 걸려 있음을 감안 사료에 무기물을 배합 사양관리를 통한 치료법을 지도하고 한우의 질병관리및 사양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1次지도후 약 1개월이 경과한 5월 4일에는 2次 기술지도를 했으며 이때에는 1次에서 거둔 成果를 분석하면서 2단계의 새로운 지도활동을 폈다.

1次기술지도시 실시한 대변검사결과 “오스텔타구”위충감염에 대한 구충, 재감염방지책, 목야지관리대책을 지도하고 혈액검사결과 나타난 “소형피로푸라스마”원충감염에 대한 대책을 지도 계몽했다.

1次지도시 지적한 사양관리에 대한 개선결과를 검토,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



원인불명의 심한 식수와 영양장애로 폐사 직전에 놓여 있는 韓牛들

으며 초지조성의 현장답습과 아울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오스텔타구” 위충감염에 대한 구충을 실시후 약 1개월후에 재검사하고 그동안의 결과를 분석키로 했다.

1~2次 지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 개선, 치료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지만 봉사단은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分析평가를 위해 지도를 착수한지 4개월후인 8월 11일 體重증체량에 대한 분석을 착수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다. 질병의 치유는 물론 體重증가에 있어 괄목할만한 成果를 나타낸 것이다.

75년 3월말 한우 66頭의 총체중이 1만kg에 불과했다. 그러나 75년 7월말 현재 총체중은 1만7천kg으로 불과 4개월만에 7천kg이 늘어났다.

이를 頭당 증체량으로 따지면 106.1kg이 늘어났으며 월평균 26,525kg (일일 증체량 약 0.9kg)씩 체중 증가를 보인 것이다.

지도결과에 대한 이같은 큰 成果는 당황하기만 했던 李목장장을 펴듯이 기쁘게 해주었고 봉사단은 기술지도의 보람과 긍지를 함께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봉사단은 이결과에 흐뭇해 하면서 그 成果를 높게 거양하기 위해 증체정지우에 대한 건강진단 및 대변검사를 실시, 처방을 주었고 봉사단원 서영석교수는 “엔시레이지” 제조에 대한 지도강연을 실시했다.

특히 봉사단원이나 목장측이 다같이 기뻐한것

은 8월에 사육두수가 90頭로 불어난 것이다.

생기를 잃었던 韓牛들이 전반적으로 영양상태가 호전되고 증체량이 증가하고 사육두수도 불어났으니 기쁘기 이를데 없었던것.

李목장장은 慶北새마을봉사단에 심심한 감사의 편지를 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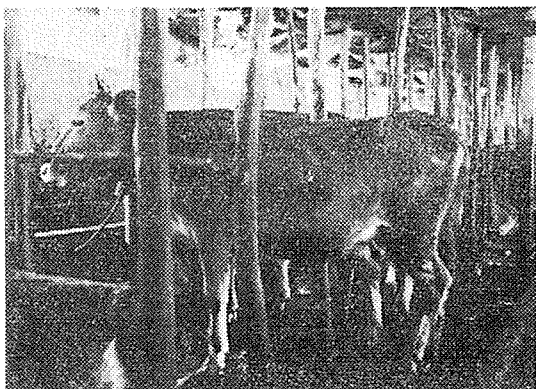
봉사단원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기술지도가 폐쇄직전에 있던 牧場을 회생시킨데 대해 고마운 뜻을 표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양관리 초지조성등에 기술지도를 퍼줄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봉사단은 동 목장의 시급한 문제점은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방목장에는 기생충이 오염되어 있고 진드기가 많이 있기때문에 계속하여 정기적인 구충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며 사료의 자급을 위해서는 草地면적을 더욱 늘려갈것을 당부했다.

이번 慶北새마을 봉사단의 금곡목장 기술지도는 畜産영농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봉사단의 깊은 신뢰는 물론 과학기술의 보급으로 목장경영에 새로운 의욕과 활력을 불어 넣어준 본보기였다고 하겠다.



새마을봉사단원이 전체적인 건강진단과 함께 피부전염병 조사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체중 증체량 분석결과 비대해진 韓牛들이 生氣를 되찾았다.